

보 도 자 료			
 환경부 힘내다 대한민국	보도일시	2020년 10월 30일 조간 (10. 29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	담당 부서	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	이정용 과장/ 이재민 사무관 044-201-6701/ 6708
	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	이동훈 과장/ 김수빈 사무관 02-2100 2830/ 2833
	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	김연준 과장/ 김영진 사무관 02-2100-2680/ 2681
	배포일시	2020. 10. 28. / 총 3매	

녹색금융 활성화 청사진 수립...제2회 **협의체** 회의

- ◇ 환경부 등 관계부처, 민간 금융기관, 학계 및 국제기구 참여하는 녹색 금융 활성화 전략 마련 방안 마련 두 번째 **협의체** 회의
- ◇ 녹색금융 분류체계, 녹색채권 안내서 초안 공유를 비롯해 올해 말까지 ‘녹색금융 활성화 전략 수립’ 예정

- 환경부(장관 조명래)는 녹색금융 활성화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의실에서 ‘제2회 녹색금융 추진 **협의체**(TF)’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.
 - 이번 전체 회의에서는 한국형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녹색금융 정책 추진 동향과 각 실무작업반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.
- 녹색금융 추진 **협의체**(TF)는 올해 8월에 구성되어 환경부와 금융위원회의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,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, 금융기관 및 학계,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여하여 세부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.

-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기후위기 관리반 등 3개의 실무작업반*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으로 우리나라 녹색금융 정책에 관한 청사진인 '녹색금융 활성화 전략'을 마련할 예정이다.

* ① 기후위기(리스크) 관리반, ② 녹색투자 활성화반, ③ 환경정보 공시반

- 특히, 녹색투자 활성화반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녹색 분류체계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녹색금융에 대한 유인체계 구축 계획과 함께 녹색 분류체계 초안과 녹색채권 안내서를 공유할 예정이다.

- 녹색금융은 기후변화와 환경요인을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금융으로 유럽연합(EU)의 지속가능 금융 행동계획*, 영국의 녹색금융 전략과 같이 세계 각국에서 녹색금융 활성화에 관한 청사진을 수립한 후 녹색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



* 유럽연합은 2018년 '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'을 통하여 녹색금융 활성화에 관한 전략을 발표했고, 올해 7월 '분류체계 법(Taxonomy Regulation)'을 제정하여 녹색금융 분류체계에 관한 법제화를 완료

- 특히 녹색채권의 경우, 2019년 전체 시장의 크기가 약 300조 원(2500억 달러)에 달하는 등 녹색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.
- 세계 각국은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경우가 많으며 녹색채권 안내서* 제공, 녹색채권 비용 지원 정책** 등을 추진하고 있다.

* 일본, 중국 등 ** 일본,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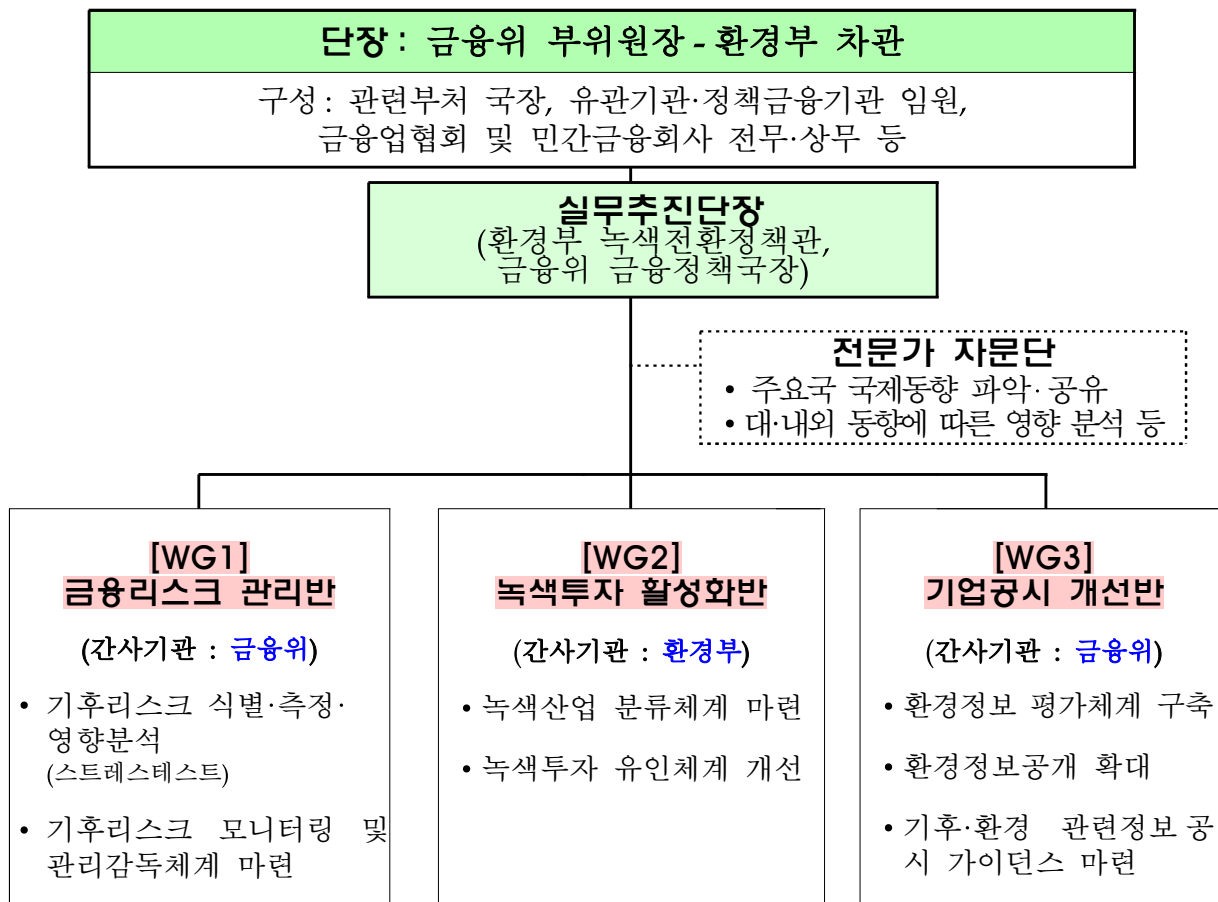
-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“코로나19 이후 녹색 복원을 위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국제적으로 녹색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”라면서, “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녹색금융 추진 **협의체**(TF) 개요.
2. 녹색금융 개념. 끝.

  <p>광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이재민 사무관(☎ 044-201-670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

- ☐ (위 원 장) 환경부 차관-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동위원장
- ☐ (실무추진단장)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,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
- ☐ (자 문 단) [연구원] 금융연구원, 보험연구원, 자본시장연구원/환경정책평가연구원
[학계·법조계] 인하대학교
[국제기구] UNEP FI, GCF
- ☐ (공공부문) [정부부처] 금융위·환경부·기재부·산업부·국조실
[유관기관] 한은·금감원·거래소·환경산업기술원
[정책금융기관] 산은·기은·수은·신보·기보
- ☐ (민간부문) [협회] 은행연·금투협회·손보협회·생보협회 등
[금융회사] 은행·증권사·자산운용사·보험사·카드사 등

※ 녹색금융 추진TF 체계도(案)



1 녹색금융 분류체계

☐ 개념

- 경제활동의 녹색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녹색 금융의 대상을 판별해 그린 워싱(Greenwashing) 방지

☐ 해외동향

- (EU) 기술적 전문가 그룹(TEG)의 분류체계에 관한 최종 보고서 발간('20.3), 분류체계법(Taxonomy Regulation) 제정('20.7)
- (중국) 중국 녹색채권 카탈로그*(Green Bond Endorsed Projects Catalogue) 발행('15)

* 녹색 채권 발행 대상 프로젝트에 관한 카탈로그

2 녹색채권

☐ 개념

- 발행자금이 전적으로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채권(ICMA)

*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: 국제자본시장협회

☐ 해외동향

- 녹색채권 발행 규모의 지속적 증가
 - 발행규모의 급격한 증가('15년 : 500억\$ → '19년 : 2500억\$)에 따라 전 세계 채권 발행액의 3.5% 차지(출처 : BIS)
- 다자개발은행(WB, ADB 등)에서 국가, 지방정부, 금융기관, 비금융 기업 등으로 발행주체 다각화 추세